

46
111주년 이화대동제

당신이
고대생집단성폭력
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 96년 5월 29일. 하오 6시부터 고대생들이 이화광장 전체를 점거, 집단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고무장갑과 호루라기를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며 약500여 명의 고대생들이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내 이화광장은 난동을 부리는 남학생들로 가득 찬다.

때는 이화대동제의 폐막제가 진행되는 중. 난동을 부리던 학생 중 한 명이 "운동장"을 외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때를 지어 행사가 진행중인 운동장으로 진입한다. 그들은 기차놀이 대형으로 이화 지킴이들의 저지선을 뚫고, 운동장에 촘촘히 서서 울동을 하던 이화인들의 대열로 무작정 돌진한다. 이들은 그 대형 그대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기를 3회 거듭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화인들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거나 깔려 밟혀서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는다. 이들은 다음 행사를 위해 이미 설치되었던 무대 위에 올라가 날뛰고 무대 하단부의 절반을 부수기도 한다.

이화 대동제의 폐막제 행사는 중단되고 운동장의 학우들을 모두 바닥에 앉아 한 목소리로 진정예의 염원을 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기차놀이 대형은 그에 아랑곳없이 앉아있는 이화인들을 그대로 밟고 걸어치며 '난동'을 계속한다. 그 과정에서 환경공학과 4학년인 한 학우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약학과 3학년 모학우는 고대생에 의해 머리채가 잡히고 가슴위쪽 부분을 폭행 당한다. 학보사 기자는 고대생이 사다리를 밀치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밖에도 수많은 이화인들이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는다.

110주년 이화 대동제의 폐막제는 상처를 안은 채 지연되어간다. ...

...고대생들은 우선 영산줄다리기를 위해 열을 지어 있던 이대 학우들 사이를 치고 달리며 심지어는 가에 서 있던 한 학우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약 3미터는 끌려 다녔다.) 나는 지킴이 친구들과 팔을 끼고 그들을 막던 중 내 위로 고대생들이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안경과 모자가 벗겨지고 너무 당황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런 나의 모습과 학우들의 모습을 즐기며 통쾌해 했다. (법학과 96학번, 96년 대동제 피해사례 중)

‘이화공간, 이화대동제 이화인 스스로 지키자.’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화대동제는 소비, 향락적인 축제를 거부하고 모든 이화인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고민을 담아내는 대동, 단결의 열려진 장이다. 이러한 이화대동제의 지난 12년간에 걸친 저 끈질긴 고대생집단난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고대문화로 표방되는 ‘남성패권주의 폭력문화’가 이화로 상징되는 ‘여성(여성문화)’에 대한 강제 침탈의 상황이 악습으로 굳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악습이 고대생에게는 ‘한때의 낭만’으로 미화되어 통과 의례, 즉 그들이 말하는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난동을 부리면서 부르는 응원가나 언설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여성비하의식과 이화여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왜곡하면서 남성우월주의와 강자의 폭력적인 모습 속에, 이화인들의 정신적인 피해의식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이화는 이 사건이 “여성공간에 대한 남성집단의 성폭력”이라 규정하였으며, 올해초부터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는 고대측에 4자회담을 제안, 난동근절을 위한 공동논의와 실천계획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화대동제가 타교생에게 개방된 이래로 지금까지 12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고대생집단성폭력을 양교학생회나 몇몇 단위의 노력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이화인들이 이화공간과 이화대동제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화공간과 이화대동제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요청되는 때이다.

제29대 총학생회와 제2대 여성위원회는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이화공간과 이화대동제 이화인 스스로 지키자.’는 기조로, 이 문제가 전 이화인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알려내고, 대동제 이전과 당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대응방식과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화대동제는 이화인의 대동단결 장으로서의 크나큰 의미를 지니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대동의 장에 침입하여 우리의 대동문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고대를 대표하는 남성폭력문화에 대항해 이화를 지켜내려는 전 이화인의 노력이 철저히 요청되는 때이다. 고대생집단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어 이화의 대동문화가 방해받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이화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당신이 고대생집단성폭력 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Q: 고대생들은 자신들의 '난동'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전통이라고 하던데요. 이화의 쌍쌍파티와 메이퀸 선발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A: 이화 대동제의 메이퀸 행사는 78년, 이미 24개의 과가 후보 선발을 거부하여서, 쌍쌍파티는 82년에 자체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대동제가 외부인에게 개방된 시기는 85년부터이며, 이 때부터 고대생을 비롯한 일당의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이는 96년에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화대동제에서의 집단 난동이라는 12년 역사의 전통이 이대의 향락문화에 일침을 놓아 이대생들을 계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전통을 따라 계속하고 있다는 논리를 당당하게 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난동이, 누구를 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애써 계승해올 '전통'이라는 것일까요.

만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대동제에 있어, 준비에서부터 마지막의 행사까지 이화인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고 즐겁게 단결하는 대동의 행사들- 영산줄다리기 등을 계속해서 반대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이미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고대생이 그렇게 몰려들면 이대 축제가 '뜨고', 이대생들도 고대생들이 오기를 원한다는데...

A: 이화 대동제의 집단 난동이 대학가의 낭만문화의 산물인 양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끼시켰지요. 또한 실제로 고대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부추기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가해자 집단인 남성이 "여성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막힌 논리를 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낭만"과 "화해"라고 하는 달콤한 포장으로 그 실상을 가린채 여성집단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철저한 가해자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화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대동제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커다란 그들만의 난동판이 벌어지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실제로 난동이 진행되는 모습은 강간 각본과 일치하고, 그 소감은 그 공포스런 폐막식을 직접 겪은 선배들이 전해줄 겁니다.

Q: 성폭력이라뇨? 좀 심하지 않나요?

A: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기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어떠한 물리적 성기접촉이 없는 경우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지요. '순결'만 잃지 않으면 별일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라고 규정해 놓았던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남성의 시점에서 사고되는 개념이고 피해자인 여성들의 느낌이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을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는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잔 브라운 밀러는 강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묶어 놓는 의도적인 위협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고대생 집단 난동의 경우를 봅시다. 매년 5월 이화 대동제에서 벌어지는 고대생들의 집단 난동은 그 주체가 남성이고 그 대상이 여성이며, 난동이 벌어지는 이화라는 공간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화 대동제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화가 바로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상공간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반면에 남성은 여성의 공간에서 구티나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체적 물리력에 의해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사회적으로 주어진 권력의 우위,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들은 이화라는 공간 안에서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으로 자유로운 이화공동체라는 여성공간은 침해당하며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 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집단에 의해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가해진 의도성 짙은 위협행위이며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집단적 성폭력이지요.

Q: 남성과 여성의 권력과 의식에 관한 문제였다면, 그날 고대생 무리 속에 있던 여학생들은 도대체 뭘니까?

A: 한 사회에서 그 사회에 속해있는 성원은 대개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여성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피지배자는 사회구조 안에서 억압과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의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죠.

그 날 고대생의 무리 속에 있던 여학생들은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공간 안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권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집단을 억압하면서 강화되는 것이기에 난동에 참여한 고대여학우들은 함께 난동에 참여하면서 지배와 권력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때문에 고대 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라기보다는 '준남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라고 하는 특정 학교나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로 대표되는 남성문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화하여 고대여학우들과 함께 고대의 남성우월적 폭력문화에 문제 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왜 지킴이는 그들을 막지 못했나요? 지킴이의 책임이 아닐까요? 또 왜 10년 넘게 이러한 행위가 방치되어 왔나요?

A: 지킴이란 이화 대동제의 전체적 운영을 위한 지킴이이지, 고대생만이 사수대가 아닙니다. 몇 안되는 지킴이들이 그들의 가공할 물리력을 대항할 전사이기를 바라십니까? 정말은 이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의 이화인 하나 하나가 자신의 공간에 대한 주권의 침탈을 막기 위해 나서야겠지요.

실상, 남성집단의 물리력을 여성들이 몸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대-고대 몸싸움'이란 식으로 떠들어댔었

는데요. 우선, 이 사건은 일방적인 고대생들의 성폭력이지, 이화인들과 고대생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오는 남성집단과 대동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몸싸움이 가당키나 한 애김니까.

그러나 지금껏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는 이화인 스스로의 잘못도 큼니다.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아도 당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뚝뚝이 말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키워져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한 점 때문에 남성집단에 의해 가해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습니다.

또한 상대인 고대와, 나아가 이 사회의 남성우월주의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도에 고대에 제출되었던 이화의 요구안은 지금의 것과 다른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론 역시 사회의 눈으로 걸려진 언론에 의해 형성되어 왔지요. 이 일을 다룬 각종 언론 매체들을 검색해보신다면 그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고 속이 상할 거예요.

Q: 작년에 호포단을 거절했다면서요? 자기들이 벌인 일이니 호포단이 와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A: 지난해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는 호포단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올해 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입장입니다. 호포단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선, 그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고대생들이 이화대동제에 오는 것을 사전에 막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포단이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시도가 아닌, 단순히 사건 당일의 물리적인 피해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측 '자성 노력'과 난동을 책임지는 자세의 대표적인 예로 내세워졌지요.

더구나 작년의 난동 기록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호포단이 함께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잡혀 이화인들을 경악케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예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초에 우리의 대동 형사가 펼쳐져야 할 우리의 장에 그들끼리의 '쟁판→진압'이라는, 게다가 호포단

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규모가 처음보다 더 커질지도 모르는 활극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호포단 파견이란, 이 사건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가해자 집단의 논리에서 나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화공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당연히 공간의 주인인 이화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화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굳이 호포단을 보내는 것은 또하나의 이화공간에 대한 침입이나 다름없습니다. 호포단이 옴으로 인해 이화는 이화 공간 안에서 다시 한 번 대상, 즉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작년 pc통신상에서 한 연대 남학생이 남긴 유명한 말을 들어 보셨지요?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리니요. 호포단의 파견과 이 연대 남학생의 발언은 사실 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이화에 대한 우리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Q: 그들의 그런 '집단' 문화가 부러워서 구경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A: 대동제 3일간에 걸쳐 이화 곳곳에서, 이화인들이 대동제를 위해 만들어 온 크고 작은 행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들로 인해 방해받는 가장 큰 행사는 폐막식의 영산줄다리기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는 이 행사는 어느 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화인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줄고기부터 마지막의 줄다리기 시험까지 모두 이화인들의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가꾸고 만들어낸 문화의 대규모 결정이죠. 폐막식때 이화광장과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영산줄다리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화 대동제의 상징이며 우리의 즐거움인 동시에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고대생들의 난동은 그 성격상 단순히 몽창문화 또는 단결문화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남성적인 집단 폭력문화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대동과 화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멋있는 힘을 구분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공간을 침탈하는 이들에 대해 이 공간의 주인인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고대'를 외치며 모여드는 무리를 에워싸고 구경해주는 여학생들이 될 것인가. 곳곳에 모여들어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그들을 그냥 무관심으로 방치할 것인가. 지킴이들이나 행사진행요원들에게 맡길 것인가.

‘이화공간, 이화대동제 이화인 스스로 지키자.’

작년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이화인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동제 당일날 고대로 대표되는 남성집단에 의해 행사를 방해받은 운동장에 있던 이화인들이나, 혹은 지킴이들, 물리적인 피해를 당한 이화인들만이 아니라, 이 공간의 주인인 전 이화인 모두가 집단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화와 이화대동제를 지켜내야 하는 이들도 물론 전 이화인들입니다. 적어도 올해에는 몇몇 남학생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남성성'을 과시하려 할 때, 이를 구경해주며 둘러싸주어 스타로 만드는 그런 의식없는 이화인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됩니다.

먼저 전 이화인들이 대동제에 참여하여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대동제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는 큰 소리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화인 모두 지킴이가 됩시다!

이화대동제 고대생집단성폭력에 관한 이화인 고양대회

일시 : 5월 19(월), 20(화)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학생관 가건물 전시실

‘이화지킴이’ 걸개그림 그리기

일시 : 5월 15일 이후.. 대동제 까지, 12시 - 오후 2시

장소 : 학생관 가건물 생협앞

‘이화대동제 우리손으로 지키기’ 전 이화인 결의대회

일시 : 5월 26(월), 오후 4시 30분 - 7시

장소 : 이화광장

‘이화인 하나되기’ 사진 콘테스트

일시 : 5월 31일 이후

장소 : 이화광장

[몽침이]를 찾습니다.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이화대동맹을 앞두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해갈 이화인을 '몽침이'란 이름으로 모집합니다. '몽침이'는 사전교양을 거쳐, 이화전반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이화인 결의대회까지 이끌어가며, 이화대동맹을 지켜내고 이후의 평가작업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몽침이' 활동 계획안

우 사전교양

일시 : 5월 19(월), 20(화) 오후 4시-6시

장소 : 학생관 가건물 전시실

우 대동맹 사전 홍보작업

: 뱃지, T-shirt 판매 및 걸개그림, 자보작업.. 등.

우 전 이화인 결의대회 준비

우 대동맹 당일 촬영팀지킴이 활동 및 사전속보작업

우 사후 홍보작업, 사전콘테스트 및 평가작업.

문의나 참가신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청해주십시오.

첫모임은 고양날짜인 5월 19일(월), 20일(화) 가건물 전시실에서 갖습니다.

연락처 : 360-3562 (여성위원회방, 약대 뒤 가건물)

015.203.1808 (박희정)